

영화 '色戒'의 시사점과 양안 삼통(三通) 교류*

김진호**

<目 次>

1. 머리말-양안관계와 연구 동기
2. 소설 '색계'와 리안의 영화의 주제
3. '색계'에 나타난 양안의 문제의식
4. 중국의 개혁·개방과 양안교류 역사
5. 양안 경제·문화적 교류와 효과
6. 결론-젊은이들과 미래의 양안관계

1. 머리말-양안관계와 연구 동기

영화 '색계'는 장아이링(張愛玲)의 소설을 기초로 하여,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만 대남(臺南) 출신의 영화감독 리안(李安)에 의해 2007년 11월에 발표된 중국 근대사의 국민당과 공산당 및 국민당계열의 친일파 등과의 내부 대립관계를 상해와 홍콩을 배경으로 묘사한 영화이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1912년 국민당 정부가 남경에 세워졌고, 1921년 상해에는 공산당이 창립되었으며, 국민당에서 갈라진 왕징웨이(汪精衛)의 친일정부가 상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국민당 안에도 여러 분파가 존재하던 시기이다. 즉, 국민당은 일본, 중국 공산당 및 친일 왕징웨이 정부와 대립했을 뿐만 아니라, 동북군대를 이끌던 장쉬에량(張學良), 광주 군벌 천지탕(陳濟棠) 등 당내 분열의 통일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했던 시기이다. 당시 황포군관학

* 본 논문은 단국대학교 2010년 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다.

**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2010년 9월부터 2011년 7월까지 홍콩 주해대학 인문학부에서 강의, 현재 홍콩 亞洲週刊 한국특파원), erickim@dankook.ac.kr

교 출신들도 일부는 공산당에 가입하였으며, 일부는 친일과 활동에 가담하는 등 군벌과 정당간의 관계가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정치작전'이라는 특수 군관제도는 중국이 소련에서 중국인 배운 것이라고 하는데, 당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에는 모두 정치작전을 담당하는 고위군관이 있었으며, 후에 대만 총통을 역임한 장징궈(蔣經國)도 당시 이 업무에 종사하였다.

소설 '색계'는 작가의 경험과 시대상황을 회고하면서 완성한 소설이나 그 소설은 많은 배경은 작가가 직접 생활해 본 경험이 있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을 기초로 2007년 완성된 영화 '색계'는 대만에서 태어나 국제적 감독으로 성장한 리안(李安) 감독이 관찰한 양안관계의 역사와 외국에서 본 중국과 대만의 시대적 상황을 소설 '색계'를 각본으로 재편집하며 의미 있게 묘사해 내려는 의도도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영화의 요소에 중국, 대만, 홍콩의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다는 것도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현대적 지역적 협력을 통해 만들어내려고 했던 감독의 의도로 볼 수 있다. 영화는 주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구도 안에서 국민당과 친일 왕징웨이 정부와의 대립을 주 시대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당시 상해에서는 국민당의 공산당에 대한 공격으로 공산당은 다른 지역으로 도피 한 상태이나, 일본의 지지 세력인 친일 왕징웨이 정부의 활동에 따라 국제적 조차지인 상해는 또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된 시점이다. 일본은 1937년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고 국제조차지인 상해도 일본의 손에 들어가게 되지만 결국 일본의 패전과 중국 내 국공내전에 따라 양안이라는 현재의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중국 상해, 홍콩, 미국, 대만에서 활동하던 장아이링과 대만에서 태어나 미국을 기초로 국제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는 리안 감독은 시대적인 거리는 존재하지만 그 소설이나 영화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에는 일부 유사한 면도 있다고 본다.

사실, 소설과 영화에 대한 분석도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고, 현재의 양안관계에 대한 시각도 여러 관점이 있다고 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영화와 현재의 양안관계를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인문학적 기초에 양안관계라는 사회과학적 현안을 연결하여 분석하는 것은 큰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를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은 역사적 과거가 결국 현실이라는 현재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꼼꼼하게 좋은 지적을 해준 논문 심사위원들의 도움으로 논문을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인문과 사회과학의 차이에서 조금 더 학문의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본다.

이 영화가 방영된 이후 중국과 대만 및 화교권의 중국인들은 이 영화의 비유적 내용에 대해 많은 반향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이 영화가 중국 근대사를 배경으로 비유한 현재의 양안상황에 암시하는 바가 컸기 때문이라고 많은 양안 및 홍콩의 시사평론가들이 말한다. 당시, 중국, 대만, 홍콩의 언론과 블로그는 온통 이 영화에 대한 해설과 토론이 가득 메어졌다. 본 논문은 홍콩 아주주간 사장 치우리번(邱立本)을 위시한 양안의 저명한 기자들과의 여러 차례 면담 및 토론을 거쳐 구상되었고 그 토론의 틀을 통해 완성되었다. 또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통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꾸준히 논문 구성상의 개선점에 대한 고민을 하며 만들어졌다.¹⁾

본 논문은 양안관계(兩岸關係; 중국과 대만의 관계)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관계에서 나타났던 내용을 양안 중국인들의 이익을 위한 내용으로의 반성을 촉구한 영화 '색계'와 그 내용과 현실 정치로 나타난 양안 '삼통'의 실제적 교류에 나타난 중국인들의 양안에 대한 궁극적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점에서, 이 양안의 대립과 교류에 나타난 양안 정부와 중국인들의 사고를 중국근대사와 영화 '색계' 그리고 현재의 양안관계를 통해 알아본 시도으로써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혼합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즉, 중국근대사에 근거한 입장으로 양안관련 영화를 분석하고 현실 정치적 입장에서 양안 '삼통'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비록, 두 분야의 연계가 쉽지는 않았지만 중국과 대만 및 홍콩의 저명한 평론가들의 중국역사, 양안관계 그리고 영화에 대한 평론을 꾸준히 탐독하며 틀을 만들어 냈다.

논문 연구 방법은 현재의 양안관계를 양안의 중국인들의 역사, 문화에 근거한 중국인들의 특성으로 내적인 분석을 함과 동시에 국제문제로서의 양안관계를 국제정치학적 틀로 분석하려고 노력하였다. 즉 전자가 중국과 대만이 통합을 위한

1) 張潔平、張殿文, '新張愛玲現象 緣滅緣起胡蘭成' 《亞洲週刊》(二十三卷 十二期), 童清峰, 張愛玲英文小說中譯傳奇, 《亞洲週刊》(二十四卷 三十八期) 등 담당기자화 여러 차례 홍콩에서 면담.

소프트파워(soft power)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후자는 중국과 대만의 통합을 정치학적 실현주의에 근거한 각 국가들의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대립이 되는 부분으로 본 것이다.

예를 들어 '삼통'은 양안의 문화 통합적 이유에서나 '신자유주의' 정신의 상호 이익에 일치하는 일이나, 이 '삼통'은 국가와 국가 혹은 국가와 지역 간의 FTA가 아닌 ECFA방식으로 양안 내부교류의 측면이 많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대만의 교류는 통합을 위한 내부 교류와 분열과 대치의 '세력균형'을 통한 강대국의 이익 논리가 공존하는 것이 양안관계의 특징이라는 본 것이다. 즉, 중미관계에서는 양안 관계는 국제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지만, 양안관계는 미국과 대만의 대외관계가 야기하는 국제정치적 시각에 양안 간 교류라는 통일되지 않은 중국의 내부적 관계도 있다고 분석해 보았다.

2. 소설 '색계'와 리안의 영화의 주제

소설가 장아이링이 상해에서 홍콩으로 떠난 다음 해인 1953년부터 구상되어 1978년 발표된 소설 '색계(色戒)'와²⁾ 2007년 발표된 리안 감독의 영화 '색계(Lust Caution)'³⁾에는 중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사랑, 사상과 노선에 대한 신념과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생활과 관습 및 사고와 각 지역 중국인들의 특성과 생활상이 잘 표현되고 있다. 특히, 상해와 홍콩을 오버랩하며 묘사하는 중국인들의 생활상, 애국애족의식과 사회의 모순을 인간감정과 이성의 부조화를 통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중국인의 가치관과 중국문화 및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은 전통 문화습관과 가정 및 사회에서 배운 지식이나 선험(先驗)에 기초하여 외적 표현에 자신의 본심을 보이지 않으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장아이링의 장시간의 탈고 후에 나온 소설 '색계'도 장아이링과 후란청(胡蘭成)의⁴⁾ 관계에 따라 당시 장아이링에 대한 매국노라는 주위의 비판

2) 蔡登山, 《色戒愛玲》, (臺北: INK, 2007) 20쪽.

3) 色戒 中文官方網站 http://www.bvi.com.tw/movies/lust_caution/ (2011년 3월 30일 검색)

과 작품의 폄하라는 절대적인 절망 속에서 작가의 오랜 내적인 갈등과 그 정리 및 순화 작업을 거쳐 25년 만에 세상에 발표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이다. 또한 영화 '색계'에서 묘사된 현 양안의 상황을 비교하며 소설 '색계'를 재구성한 작품은 시대상황을 시공을 넘어 비교하며 중국인들에게 각성을 촉구한 시사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이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에서 그들의 사물과 감정과 이성 에 대해 내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행위가 잘 나타난다. 이 애정이란 사람과 진귀한 물건에 대한 그들의 집착이다. 이러한 중국인이라면 쉽게 이해되는 그들만의 '모르 스 기호' 같은 그들만의 암호해석 방법이 중국인들의 표현방식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⁵⁾ 이러한 행위를 사회과학인 국제관계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 기업이나 정부의 모습도 그리 세련되지 못해 보이거나 혹은 과거 봉건주의적 혹은 중화 민족주의적 혹은 실리주의적 색채가 보이게 된다. 즉, 그 의도와 행위의 투명도가 부족하여, 이러한 중국인들의 습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쉽게 그들의 본의를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개인적 일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서로 연결되고 구체적인 설명이 표현되지 않기에, 중국인의 가치관과 다른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인들의 행위를 애매모호하게 보는 것이 많다.⁶⁾ 이러한 중국인들끼리의 거미줄 같은 사고와 암호와 같은 언어표현 그리고 모호한 행위가 현재의 양안관계나 중국과 대외관계라는 부분에서 수시로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현실 정치에서도 중화주의와 국제적 가치관의 차이라는 문제는

4) 장아이링은 1944년 2월 4일 호란청을 처음 만나고, 둘은 빠른 시간에 연인으로 변하였다. 1944년 7, 8월 사이 호란청은 세 번째 아내와 이혼하고 이어 장아이링에게 청혼한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장아이링은 당시 한간(漢奸) 혹은 수준 없는 작가로 공격받게 된다. 蔡登山, 《色戒愛玲》, (臺北: INK, 2007) 23-41쪽.

후란청은 남경 왕징웨이 친일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며 신문사와 왕징웨이 정부에서 일하던 친일파로 알려진 작가로 1944년 장아이링과 결혼한다. 유명한 작품으로는 '금생금세(今生今世)'가 있다. <http://baike.baidu.com/view/34315.htm>(2011년 3월 30일 검색)

5)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중국인들과 근 30년을 같이 생활하며 지내고 있는 필자의 누적된 감정이나 중국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서 동의를 얻어낸 부분을 말하는 것이나, 중국인의 절대적 가치 근거라고는 할 수 없다.

6) 金耀基, "中國人的公、私觀念", 喬健、潘乃谷主編, 《中國人的觀念與行爲》, (臺北: 麗文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7), 59-73쪽.

동서의 마찰이라는 문제로 표면적으로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중국인들은 중국적 가치관을 서방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고, 서방은 중국이 국제적 가치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고 서로 주장한다.

사실, 중국민족에게는 ‘자존심’이라는 중국적 가치관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려는 행위의 동인(動因)이자 그들 민족과 사회에 대한 자신의 역사적 인식이다. 이것이 무시되거나 관철되지 않는 경우 중국인들은 화를 내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때론, 중국의 역사·문화·사회에 기초하여 표현되는 언어나 행위가 외부세계에서 쉽게 그냥 ‘중국적인 특성’으로 판단하는데, 이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중화민족적인 사고와 행위는 중국인과 외국인 혹은 중국과 외부세계 뿐만 아니라, 중국인과 중국인 사이에서도 한(漢)민족과 한민족 혹은 한민족과 이(異)민족 사이의 실리(實利)와 명분(名分)으로 ‘천하(天下)와 패권(霸權)’의 구조나 개인(個人)과 타인(他人) 사이에서 사용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 중국인들의 ‘아름다운 것’과 ‘귀한 것’ 그리고 사회에서의 체면과 실리의 가치관이 민족, 애국, 이념, 질투, 사랑이라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 ‘색계’ 소설과 영화의 주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다. 중국적 가치관으로 보는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친일 왕징웨이 정부에 대한 의식과 양안관계의 국제정치적 측면이 소설과 영화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는 왕조와 정부, 중앙과 지방 등의 다툼이나 현재 양안관계의 문제와 상인들이나 지도자들의 관계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양안관계를 예로 들자면 서구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보면 분열된 지역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국가이익에 근거한 힘의 경쟁이라는 사회과학적 요소와 중국인들의 전통적 가치관에 근거한 ‘천하의 패권’의 개인 및 민족적 영웅주의 요소가 양안관계의 ‘관시(關係)’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1894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대만점령, 국민당이 야기한 내전,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개입 등 일련의 역사적 사건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 내적으로는 이 분열이 공산당과 국민당의 국내외적 천하를 놓고 벌인 패권 쟁탈이었다는

것을 중국인들도 부인하지 않는다.

양안관계의 본질적 내적문제는 '색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중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통찰과 자신들이 믿는 이념, 정치사상과 현실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난 것이고, 외적으로는 당시 강대국들의 '식민지 의식'과 시대적 '냉전의식'이 중국인들의 분열의 원인 혹은 조정자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들의 이념과 각자의 국가건설을 위한 패권투쟁과 외부세계의 이념과 냉전의식에 의한 분열이 서로 내외부로 상호작용하여 현재의 양안관계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영화 '색계'는 이러한 중국인들의 대립이 개인적인 영위와 안정 그리고 패권을 위한 투쟁이었고, 이에 의해 세상 진위를 모르고 순수한 열정을 갖고 있는 중국 청년들이 희생되었음을 보여준다. 영화가 양안의 대립시기인 2007년에(대만 민진당 집권 시기) 나온 것을 보아도, 지금도 과거와 같은 양상이 반복된다는 것을 영화를 통해 나타내면서 근대사에서의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에 의한 피해를 반성하지는 의미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국민당이 다시 정권을 획득한 2008년부터의 양안관계의 큰 변화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된다. 사실, 영화가 바로 현실적 국가나 지역 간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양안의 분열과 협력이라는 중국인들의 내적 문제를 생각한다면 내부의 분열과 대립과 외세의 간섭이라는 두 개의 축에서 중국인들이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3. '색계'에 나타난 양안의 문제의식

1949년 공산당과 국민당의 내전의 종말로 중국대륙의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으로 나뉘어져 대치되었던 양안관계는 1987년부터 대만 장징궈 총통의 양안정책에 의해 허가된 중국 출신 대만 국민당 퇴역군인들의 고향 방문을 기점으로⁷⁾ 결국 대만의 계엄해제와 민진당의 집권 그리고 국민당의 재집권을 통한 현재 적극적인 양안 교류인 '삼통'으로까지⁸⁾ 발전했다.

7) '聯合報：蔣經國大功業在於解嚴和開放兩岸交流'(中國評論新聞網再引用)

<http://www.china-reviewnews.com/doc/1009/4/0/7/100940795.html?coluid=13&kindid=98&docid=100940795>(2011년 3월 30일 검색)

일부 학자는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큰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는 'G2'의 '국태민안(國泰民安)'시대에⁹⁾ 접어들었다고 한다. 현재 많은 중국의 중국인들은 현재 양안의 교류는 중국과 대만의 쌍방에 모두 이익을 주는 민족적 화해에 기초한 교류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1997년 홍콩과 1999년 마카오를 회복 한 후, 대외 외교와 양안정책을 통해 중국의 완전한 통일의 관건이 될 대만이라는 분단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반대로 대만은 동등한 지위와 평화에 기초한 협상이 아닌 경우, 중국과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통일이나 통합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¹⁰⁾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보를 지키면서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의 중국 원칙(一個中國政策: One China Policy)'을 중국정부의 지상과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정부가 대만의 독립이 갖고 올 중국 내의 분열과 이에 따른 국제무대에서 발생할 국가이익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또한, 중국 정부는 '중국의 발전은 영토의 안전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따라 중국인들은 공산당 당원에서부터 일반 대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만 평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분열은 혼돈을 부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중국의 정책이나 중국 언론보도의 흐름을 통해 쉽게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중국인들은 제국주의의 침략·항일전쟁·국민당과 공산당의 내전(1945년에서 1949년)·대약진운동·자연재해(1959년부터 1962년)·문화대혁명

8) '三通促進兩岸大交流、大合作、大發展'(中國網)

http://big5.china.com.cn/zhuanti2005/txt/2009-02/09/content_17248338.htm(2011년 3월 30일 검색)

9) 北京大學國際關係學院 潘維教授

blog <http://www.caogen.com/blog/index.aspx?ID=198> (2011년 3월 30일 검색) 반교수의 문장들은 동서양을 역사와 사상 및 사회를 비교하며, 중국의 현재 상황이 역대 중국의 왕조와 비교하여 태평성대의 시대 중 하나라는 강조하고 있으며, 2010년 한국 경희대학교 여름학기 외국인 특강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필자와의 여러 차례 대답에서도 반교수는 현재 중국의 상황을 중국 역사상 유래 없는 전 중국인들의 국태민안의 시대라고 의견을 펼쳤다. 반교수의 blog에는 이와 관련된 중국의 현황에 대한 문장들이 많다.

10) 丁偉, "兩岸結構共同體: 理論、政治、矛盾", 香港珠海學院亞洲研究中心, 《2010海峽兩岸與台港關係》學術研討會論文, (香港: 香港珠海學院亞洲研究中心, 2011) 3-14쪽.

(1966년부터 1976년까지)과 같은 어렵고도 힘든 시간을 거쳐 왔고,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는 1989년 '6·4 사태'와 같은 사상 및 사회적 동요도 인고해 냈다. 현재 중국은 개혁·개방의 성과에 기초하여 대외적으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따른 외부세계의 압력에도 대응하면서, 동시에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국내 빈부 격차 문제와 각종 부정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고전분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를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중국의 대내외적 국가정책이며, 양안의 적극적 교류도 이 정책에 부합된 양안 정부 입장이 합리적으로 조화된 결과로 보인다. 특히, 후진타오 주석은 양안문제에 자신의 정책적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싶어 하는 상황이다.¹¹⁾

중국 격동기의 여류 작가 장아이링(張愛玲)이 긴 시간 속에 탈고한 단편소설 '색계'가 중화문화권의 한 지역인 타이완(臺灣) 타이난(臺南)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활동하는 리안 감독에 의해 영화 '색계'로 만들어져 방영되었다는 것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중국인들의 사고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대만이 중국과 분열되어 있고, 대만정치상황도 서로간의 이념적 갈등이 증폭되어 가고 있는 대만 민진당 집권 시점에서 방영된 이 영화는 중국세계 안에서 서로간의 입장의 차이로 나타난 대립이 국가의 골간이 될 젊은이들의 낭비적 희생을 낳게 해서는 안 된다는 중국 근대사의 교훈을 양안관계의 현실을 빗대어 영화로 만든 것 같다.

리안 감독은 이전에도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중국인들이 이민사회인 미국에서 보이는 대립과 또한 중국인들 해외 생활의 뿌리가 되는 중국인들의 문화와 사랑을 영화 '쿵후아저씨(推手)'에서¹²⁾ 표현한 적이 있다. 이 영화에서도 중국의 여러 방언이 등장하는데, '색계'에서도 보통어, 상해어, 광둥어 등 여러 중국 언어가 동시에 등장하며 출연진도 중국과 대만, 홍콩의 배우들이 모두 같이 출연하여 중국의 다양함과 공통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화 '색계(色戒)' 속의 색(色)은 인간 심연의 본성으로 시대적 대치상황과는 별

11) '胡錦濤提新形勢下發展兩岸關係四點意見'(新華網)

http://news.xinhuanet.com/taiwan/2005-03/04/content_2649922.htm(2011년 3월 30일 검색)

12) 推手(電影) 維基百科

[http://zh.wikipedia.org/wiki/%E6%8E%A8%E6%89%8B_\(%E9%9B%BB%E5%BD%B1\)](http://zh.wikipedia.org/wiki/%E6%8E%A8%E6%89%8B_(%E9%9B%BB%E5%BD%B1)) (2011년 3월 30일 검색)

개인 인간의 공통분모로 보인다.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현실적 입장의 차이로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인들의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중화사상과 문화라는 공통점으로도 볼 수 있다. 그래서 리안 감독은 영화에 외적으로 서로 대립된 사람들이 내적으로 갖는 공통점으로 선정적 장면을 넣어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리안 감독은 그의 영화 '음식남녀(飲食男女)'에서 색(色)에 대한 인간 본능적 집착을 회극적으로 표현했는데, 리안 감독이 '색계'에서 표현하는 색은 '음식남녀'에서의 평화로운 시기의 정욕(情慾)이 아닌 당시 격동의 시대상황을 비유하듯이 격정(激情)으로 표현하고 있다.

영화 속의 계(戒)는 경계심을 나타내는데, 한자로 반지(戒指)를 의미하기도 한다. 영화에서 귀부인들이 마작(麻將)을 하는 장면에서 서로 얘기하는 다이아반지에 대한 자랑과 상해의 금은방에서 이장권(易將軍; 양차오웨이梁朝偉 역)이 왕지아즈(王佳芝; 탕웨이湯唯 역)에게 다이아반지를 선물하는 것이 그러한 내용이다. 상해의 금은방에서 경계심을 풀고 왕지아즈와 같이 반지를 찾으러 간 이장권은 이미 왕지아즈의 정보에 의해 암살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왕지아즈가 암살계획을 포기하고 "빨리 자리를 떠나라(快走)!" 말로 이장권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사랑의 표시인 다이아반지(戒指)가 경계심(戒心)을 풀었던 이장권에게 다시 경계심(戒)을 갖게 하는 왕지아즈의 이장권에 대한 애증(愛憎)임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에서 일어난 사랑의 표현이었던 반지가 극적인 사랑에 의해 경계심을 풀었던 이장권의 경계심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마지막에 이장권이 다시 이 반지를 쳐다 보는 것이 극적인 사랑과 경계심을 대비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장아이링이 그의 첫 남편이었던 당시 왕징웨이 정부의 고위간부였던 후란청(胡蘭成)에 대한 애증을 리안 감독이 중국인들의 인간적 애증과 현실체제의 갈등을 영화로 표현한 것 같다.¹³⁾

영화의 여주인공인 왕지아즈(王加芝)는 1930년대 상해에서 활동하던 국민당

13) 張潔平、張殿文, 《新張愛玲現象 緣滅緣起胡蘭成》, (香港: 亞洲週刊 二十三卷 十二期, 2009)
<http://www.yzzk.com/cfm/SearchResult.cfm?Criteria=%A6%E2%A7%D9&Collection=YZZK&Sort=KEY&SortOrder=DESC&MaxRows=20&Page=1> (2011년 4월 10일 검색)

정보기관 소속 정보원 정펑루(鄭蘋如)가¹⁴ 실제 주인공이다. 그녀는 중일전쟁(1937-45년)이 일어난 1937년, 상하이 정법학원(법과대)에 입학했다. 그 해 7월 잡지 '좋은 벗(良友)' 표지모델로 실린 인연으로 상하이 사교계에 본격 데뷔했는데, 정펑루에게 상하이 주재 국민당 조사통계실(국민당 정보기관의 공식명칭) 책임자 천바오화(陳寶驊)가 접근하고, 천바오화의 권유에 정펑루는 동의하고 만나. 당시 국민당 조사통계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친일파 왕징웨이 괴뢰정권이 상하이에 비밀리에 만든 정보기관인 이른바 '76호'였다. '76호'의 최고 책임자인 덩모춘(丁默邨: 1901-1947)의¹⁵ 맹활약으로 조사통계실의 상하이 조직이 뿌리가 뽑힐 정도였기 때문이다. 덩모춘은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인 이장권(易 선생 혹은 易장군으로 불리어짐)의 실제 모델이다. 그는 원래 중국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변절해 국민당 조사통계실을 거쳐 다시 왕징웨이 정권으로 일터를 옮긴 인물이다. 실제로 1939년 겨울, 정펑루는 서둘러 덩모춘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 저격수를 숨겨둔 상태에서 덩모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갑작스레 일이 생겼다며 돌아갔다. 1차 거사는 실패했고, 같은 해 12월 21일, 정펑루는 덩모춘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한 뒤 헤어지는 길에 성탄절 선물로 시베리아 모피 전문점에 가서 코트를 한 벌 사달라고 조른다. 덩모춘은 흔쾌히 사주겠다고 했으나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다른 문으로 뛰쳐나갔다. 거동이 수상한 사람들이 뒤따라 들어오자 위기를 직감했던 것이다. 정펑루는 거사가 실패로 끝난 뒤 덩모춘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잘 몰랐다"고 변명했다. 둘은 성탄절 전야를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다. 정펑루가 들뜬 마음에 약속 장소인 나이트 클럽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이 그를 찾아온 것은 덩모춘이 아니라, 76호 행동대원들이었고, 이들은 그녀를 차에 태워 연행했다. 정펑루는 이듬해인 1940년 2월 중순,

14) 정펑루(鄭蘋如: 1918-1940)는 절강성 남계(蘭溪) 사람으로, 아버지 정위에위엔(鄭維原)은 일본 정법대학에서 유학했다. 일본에서 손중산의 혁명운동을 좇아 동맹회(同盟會)에 가입했다. 정위에위엔은 일본 여인 기무라 에미미(木村花子)와 결혼하여 중국으로 돌아와 2남3녀를 낳았는데 정펑루는 둘째 딸이다. 아버지와 국민당 정보부의 천바오화(陳寶驊)의 업무적 관계에 따라 당연히 정펑루도 천바오화를 알게 되었고 후에 정보요원이 되어 항일투쟁을 하게 된다. 蔡登山, 《色戒愛玲》, (臺北: INK, 2007) 75-86쪽.

15) 왕징웨이의 상해 정보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덩모춘이었고, 그 사무실은 상해지스파이얼루 76호(上海法司非爾路76号)에 있었다. <http://baike.baidu.com/view/385083.htm> (2011년 3월 30일 검색)

상하이 교외의 황량한 벌판에서 22세의 젊은 나이에 총살을 당했다. 덩모춘의 일생도 비극으로 끝났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덩모춘은 일본 부역자로 체포돼 재판관을 받았다. 1947년 7월 난징(南京) 교도소에서 46세의 나이로 총살을 당했다.

소설에서 장아이링의 경험과 정펑루의 실제 사건과의 연계는 영화에서 더욱 현실감 있게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표현된다. 그러나 영화에서는 국민당과 왕징웨이 정부의 대립 외에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문제도 배경 흐름으로 표현되고 있다.

영화 '색계'는 화교권지역을 포함한 세계 여러 지역에서 상영되었으며,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음과 동시에 외설시비도 나왔던 영화다. 중국현지의 영화 관람객들은 '색계'를 통해 리안을 폄하하며, 이러한 극적인 정사부분을 거론하며 이 영화를 삼류영화로 매도하면서 리안 감독이 장이모우(張藝謀) 감독에게 배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상해에 여러 세력이 대립되는 시기 장아이링이 당시 문단에서 매국노이자 삼류소설 작가로 폄하된 내용과 비슷하다. 이것은 중국 대륙에 있는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매국노에 대한 선입관과 일본 괴뢰정부와 국민당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수도 있고, 리안 감독이 대만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¹⁶⁾ 즉, 양안 중국인들과 정부의 사상적 대립과 상호멸시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영화 '색계'에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의 역사적인 갈등 구조가 다시 대만과 중국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새로운 갈등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화 '색계'에서 표현되는 시대상황적 분석과 인간의 내재된 욕구와의 갈등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한 양안 양측이 모두 근접한 사고를 갖게 된다면 양안 중국인들은 문화, 역사적으로 가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이 이 영화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면인 인간 심연의 욕구와 사회적 현상을 애증과 애국심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개인적 욕구와 애국심을 가치판단 근거와 이율배반적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인간의 근원과 사회에서의 행위에 대한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역사의 주체가 되려는 당파와 세력들과의 이견과 다툼은 당시 국민당과 왕징웨이 정부간에, 국민당과 공산당간에 그리고 현재의 중국정부와 대만당국에

16) 新浪博友熱評《色，戒》<http://blog.sina.com.cn/lm/z/sejie/index.html>(2011년 3월 30일 검색)

아직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시대적 상황으로 다른 한쪽의 유명한 감독을 폄하하며 스스로의 비교우위를 느끼려는 것은 영화 '색계'에서 보여준 중국인들끼리 갈등부분이다. 영화 '색계'에서 리안 감독이 표현하려는 것은 양안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반목하고 질시하며 젊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열정 있는 중화 세계의 젊은이들이 시대적 희생양으로 삼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리안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말하려는 한 부분일 것이다. 대만내의 국민당과 민진당, 내성인과 외성인, 범록(汎綠)과 범남(汎藍)으로 나누어지는 대만 내 대립상황과 대만과 중국과의 소모적인 견제와 적대관계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젊은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리안 감독의 중화민주주의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중국 사회에서의 빈부차이 그리고 관(官)과 민(民)의 입장 그리고 현재 양안의 젊은이들의 관계라는 면에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 중국근대사에서 중국인들이 침략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인은 중국인을 공격하지 않는다.(中國人不打中國人)”라는 말이 중국민족의 마음(中國心)으로 볼 수 있다.

4. 중국의 개혁·개방과 양안교류 역사

국민당과 대립하고 있던 공산당은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내걸고 전국에 걸친 토지개혁실시를 주장하고, 자신의 지배구역에서 토지개혁과 상공업 및 소민족자본 보호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지지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호응하여 국민당 지역의 일부 군벌과 민족 자본가까지 공산당에 협력함으로써 공산당은 강한 정치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이한 정치적 조건하에서 국민당정부는 1948년 말 서주전투에서¹⁷⁾ 주력부대가 커다란 타격을 받고 패배하였고, 이 전투를 계기로 공산군은 국민정부군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하였다. 이어 1949년에는 중

17) 회해(서주)전투는 1948년 11월 16일 역사적인 군사 거점인 서주에서 발생한 국민당과 공산당의 혈전이다. (淮海戰役, 從1948年的11月6日開始, 圍繞着軍事重鎮徐州, 國共兩黨開始了一場震憾中外的大血戰。) <http://www.xywq.com/lishi/files-2/f2-471/484-huaihai.htm> (2011년 4월 30일 검색)

국공산군이 중국 본토의 거의 전 지역을 점령하고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 와중에서 국민당 정부를 지원하고 있던 미국은 사태의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1949년 7월 중국백서를 발표하고 중국 국민 정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였다. 미국의 원조에 크게 의존하던 국민당은 원조의 중단과 함께 후퇴를 거듭하여 결국 1949년 말 대륙에서 밀려나 퇴각하여 자신의 독자적인 정부를 유지하였다. 이로써 광대한 영토를 지닌 대륙 공산당과, 대만을 영토로 하는 대만 국민당 사이의 분단이 시작되었으며, 이것이 양안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지난 양안관계를 시대적 특성에 의거하여 구분한다면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군사적 충돌시기(1949-1978)

1949년 내전에서 패한 장지에스(蔣介石)국민당정부가 대만으로 이주한 이후 1978년까지는 양안 간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 지속되었던 시기다. 이 기간 동안 대만은 '반공대륙(反攻大陸)'을, 중국은 '무력을 통한 대만해방(以武力解放台灣)'을 주장하여 1949년 꾸녕토우(古寧頭)와 1958년 8.23전 등의 무력충돌 등 양안 간에는 크고 작은 군사적 대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1960년 이후 양안의 군사충돌은 그 규모나 수에 있어서 점차 줄어들다가 1972년에 미국의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안의 평화를 촉구한 상해공보(上海公報)에¹⁸⁾ 조우언라이(周恩來)와 함께 서명함을 계기로 양안의 긴장은 어느 정도 해소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실질적 군사충돌은 지금까지 발생되지 않았다.

2) 평화적 대처시기(1979-1987)

1979년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발표한 고 대만동포서(告臺灣同胞書)를 통해서 '조국 평화통일'의 방침과 양안의 우편, 항공, 통상 분야에 있어서 쌍방의 개방을 의미하는 '3통'주장과 동시에 무력으로 대만을 해방시키겠다는

18) 《上海公報；中美聯合公報, Sino-US Joint Communique (28 February 1972)》
<http://baike.baidu.com/view/441360.htm>(2011년 4월 30일 검색)

기존의 주장을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1981년 9월 30일 당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던 예지엔잉(葉劍英)은 “대만은 조국의 품으로 돌아와 평화통일을 실현하자.”는 상무위원회의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는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84년 덩샤오핑은 대만, 홍콩, 마카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방안으로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제의하기에 이른다.

반면 대만에서는 같은 기간 정치민주화와 경제자유화를 가속화하는 동시에 중화민국의 통일방안으로써 삼민주의를 통한 중국통일안(以三民主義統一中國)을 정책적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정권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접촉, 비회담, 비타협의 입장을 고수하여 ‘일국양제’를 통한 중국의 통일전략에 어느 정도의 정치적 거리감을 두게 된다.

3) 민간 교류 시기(1987-현재)

앞의 시기가 중국의 정책에서 유래했다면 이 시기의 도래는 국민당 정부의 조치에서 유래되었다. 즉, 1987년 11월 대만정부가 대만인의 대륙 친지 방문을 허용하면서 양안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이후 1988년 국민당 제 13차 당 대회에서는 ‘현단계대륙정책초안(現階段大陸政策草案)’을 마련했고, 1990년에는 대만 총통부 직할로 국가통일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필두로, 1991년에는 행정원에 ‘대륙위원회’와 민간 기구로써 ‘재단법인 해협교류기금회’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국가통일강령’을 제정하는 등 대륙정책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정비했다. 이러한 대만의 기본입장은 중국의 직접간접교섭을 계속적으로 거절하는 한편, 비공식적 민간교류를 허용하는 정책을 견지하였다.

삼통은 통상(通商), 통우(通郵), 통항(通航)을 그리고 사류(四流)는 경제, 문화, 과학기술, 체육 등의 교류를 말하며, 그것은 1979년 1월1일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발표한 ‘대만동포에게 고함’의 주요 내용이었다. 중국은 이 문서에서 “양안 인민에게 직접접촉·상호통신·친지방문, 그리고 관광객의 여행 등을 허락하기 위한 대만과의 통상·통우·통항이란 정책과, 경제적·문화적·학술적 그리고 스포

츠 교류 등 4대 교류에 관한 주장.”을 제시했다. 이처럼 평화공세를 시행함과 동시에 당시 쉬시항치엔(徐向前) 중국 국방장관은 금문(金門), 마조(馬祖)열도에 대한 공격을 중지할 것이라고도 선언했다.

현재 양안의 변화는 삼통을 통한 경제, 문화적 교류 외에도 과학기술분야의 산업협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양안의 협력은 결국 중국으로 반환된 홍콩의 중계무역의 이익도 줄게 하였으며, 중국 북건성 지역과 대만지역과의 전체적인 산업 단지가 형성되어 중국 동남부 공업발전의 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사실, 상해 이남으로 광둥성에 이르는 산업지역은 양안의 교류를 통해 더욱 산업구조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대만의 반도체, LCD 기술을 포함한 기타 기술에 중국의 자본·토지·노동력 및 국내외 시장이 결합된다면 양안의 산업간 협력을 이룰 수 있고, 관광과 교류의 확대를 통한 문화적 이질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¹⁹⁾

현재 중화경제권이니 ‘차이완’이니 하는 언어는 경제통합의 의미 외에도 문화 및 가치관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의미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양안 경제·문화적 교류와 효과

양안 간의 인적 교류의 시작은 1980년대 접어들면서 간헐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고 비공식적인 상태에서 행해진 소수 인사의 상호 방문에 불과하였다. 본격적인 인적 교류는 대만정부가 대만에 거주하는 대륙 출신자들에게 대륙에 거주하는 친척방문(探親)을 허용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는 국민당 내의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장징궈 총통의 확고한 의지에 힘입어 1987년 10월 14일 국민당 중앙상무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 당시 중국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중·대만의 관계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 2011년 5월 6일에서 8일까지 중국사천성 성도에서 제7회 양안경제문화포럼이 개최되었음.
“第七屆兩岸經濟文化論壇共同建議” <http://roll.sohu.com/20110513/n307418577.shtml> (2011년 5월 10일 검색)

중국과 대만의 사회·문화교류가 정치적 요인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중·대만의 관계개선, 전반적인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양안의 학술교류, 언론교류, 문화·체육교류 등은 양안 주민에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쌍방의 사회·문화적 이질감을 줄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경제·사회적 교류의 증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 약화로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고 있다. 둘째, 양안 간의 갈등이 '체제간의 갈등'에서 '권력집단간의 갈등'으로 성격이 변화하였다. 특히 경제·사회분야의 활발한 교류는 이미 정치적 적대관계의 의미가 무색하게 된 단계에 이르렀으며, 중국과 대만 양측이 모두 경제적 보완성을 통해 공동발전 할 길을 열어주었다. 셋째, 경제·사회적 교류의 확대로 기능주의적인 통일 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치논리 위주의 통일논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넷째, 중국과 대만 주민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군사적 긴장과 정치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을 한 개의 성으로 보고 정치적 통일논의를 서두르려고 하는 반면, 대만은 스스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로서 중국의 민주화 이전에는 통일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현재 대외정책에 있어 전환기에 놓여있다. 덩샤오핑 시대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현재 중국의 권력을 대변하듯 '평화굴기(和平崛起)'의 적극적 노선으로 진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외교 사안이나 통일문제에 관한 한 적극적 공세를 펼쳐 나갈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양안문제에 대한 중국의 자세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중국 지도부가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하는 이전의 방법 이외에 보다 강압적 태도를 비치면서 대중화주의의 명분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사실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통일에 관한 평화공세 자세를 보여준 것도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부터였다. 즉 중국의 자신감은 경제발전의 성과와 직결되었다. 중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운 '일국양

제'는 양안통일에 있어 움직일 수 없고 변함없는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정착되어왔다. 중국이 양안통일 실현을 진정으로 평화수단에만 의존하려면 '일국양제'의 원칙과 내용이 대만인의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교화 되어야 하며, 무력행사보다는 기능주의적 경제통합의 중요성과 실익을 주지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어느 정도 억제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원하는 형식대로 양안통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다름 아닌 중국의 정책과 태도가 대만독립 여부와 방향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만의 경우는 정치적 지위를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지배적이다. 현 단계에서 '하나의 중국'이 변질될지라도 독자생존 양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하겠다. 여전히 자신의 생존논리로 강변하고 있는 '양국론'은 바로 이러한 대만의 절박한 정서를 대변해 왔다. 이러한 의미에서 향후의 양안통일 논의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양안 간의 통일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은 서로가 상대방에게 결정적 양보를 하도록 물리적 힘을 행사하지 않는 한 그리고 제3제국 및 외세가 양안 정세를 급격하게 타파하려 하지 않는 한 당분간 현상유지 형태를 지향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양안문제는 한편으로 국내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는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적 요인을 완전 배제할 수 없는 복잡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6. 결론-젊은이들과 미래의 양안관계

중화민국은 손문의 신해혁명으로 남경에 수도를 두고 1911년 10월 10일 선언된 나라이고, 대만은 중화민국이 중국대륙에서 공산당과의 내전에 패해 1949년 장카이스(蔣介石)의 인솔아래 중국 본토를 떠나 대만으로 들어온 나라라는 것을 보면, 이는 삼국시대 유비가 오나라와 위나라에 밀려 후퇴하면서 만든 촉나라와 비슷한 형상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무대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중화민국'에서 '대만'으로 바뀌어 불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대만이다. 비록 지

리적인 중요성과 요새로서의 가치도 있으며 정치 민주화와 산업발전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대만의 존재와 체제가 중국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인의 특성으로 본다면 일찍이 중국 해안지역에서 대만으로 이전한 대만 내성인(內省人)들의 특성은 중국 본토의 복건과 학가(客家)의 특성에 일본과 비슷한 섬나라의 특성 그리고 미국식 교육제도에 따라 양성된 복합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중국 남방 중국인의 특성과 섬에서 사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대만 사람들은 무역상술이 발전되었고 예전부터 중국본토와 무역을 하며 상인으로서의 기틀을 잡은 사람들이다. 반대로 중국 본토에서 1949년과 그 후 국민당과 같이 대만으로 들어온 외성인(外省人)들은 중국 본토의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역사·문화적으로 유사한 중국인이거나 대만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대만의 중국인으로 안착한 근대에 대만으로 이주한 중국인을 말한다.²⁰⁾ 이들은 같은 중국인임에도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들과는 다르게 대만사회에서 내성인과 외성인으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다. 우리가 대만의 선거에서 국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배경이 되는 '종족의식(族群認同)'을 보면 같은 대만에서도 이러한 차이가 나는 중국인이 등장한다. 중국은 중국인과 대만의 중국인이 모두 비슷한 중국인으로 대통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양안 간 경제적 상호의존은 양안관계에 새로운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실효를 거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거대한 정치, 경제적 흡인력을 의식해 대만 정부가 설정한 각종 규제 장치에도 불구하고 양안의 교류협력은 과거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수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특히 중국과 대만은 정치, 군사적으로 대립하는 두 정치체제가 이룩할 수 있는 경제적 교류를 무한히 확장하고 있다.²¹⁾

중국 후진타오와 대만의 마잉지우는 지난 2008년 12월 양안의 '삼통'을 체결하여 그간 홍콩을 경유해 무역을 해오던 중국과 대만은 직접적인 교역을 시작하게

20) 蔡瑋, "兩岸文化協議芻議", 香港珠海學院, 《亞洲研究》, (香港: 香港珠海學院亞洲研究中心, 2001), 133-150쪽.

21) 문홍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7-8쪽.

되었고, 또한 2010년 6월 29일 양안 간 경제 교류를 활성화시킬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하였다. 중국은 또한 대만과의 경제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經濟區)'를 구상하여 대만의 실리콘 벨리 신주(新竹)에서 100여 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복건성 핑탄다오(平潭島)에 새로운 물류기지 건설을 서둘러 착수했다. 이곳은 양안 경제 협작을 위한 양안 특수 관세 시범지구로 선정되었고 중국 푸저우(福州)와 핑탄다오(平潭島) 사이의 바다를 가로질러 건설 중인 핑탄해협대교(平潭海峽大橋)는 총 5km 길이이다. 이 대교가 건설되면 이곳은 중국과 대만의 물동량을 책임지는 최대 물류기지가 될 전망이며 중국과 대만의 IT등 첨단 기술 합작구와 문화 관광 합작구가 조성될 것이다.²²⁾ 이러한 중국과 대만의 협력은 대만의 경제와 문화가 통합되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대만의 유학생이 중국에서 유학을 하듯이 중국의 유학생이 대만에서 유학을 하게 되면 양안 교류를 통한 중국과 대만의 문화·사회적 상호 인식의 정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초에 있을 마잉지우 대만 총통의 연임이 달려있는 대만 대선은 양안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민진당의 야당이 집권하는 경우 양안의 경제적 협력 문제와 대만의 국제정치적 문제를 분류하는 정책을 시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적, 경제적으로 쉽게 서로 양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인과 대만인들은 중국인과 중국인으로서의 대만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본다. 홍콩인에서 중국인으로서의 홍콩인으로서의 변화만큼은 아니지만 아직 국가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대만은 중화민국국민으로서의 중국인과 양안입장에서의 대만인으로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여하튼, 현재의 양안관계는 양안이 대립하던 시기와는 다른 중화문화에 대한 융합이 경제적 교류 이상으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본다. 비록 중국인에 반하는 대만인으로 인식하는 대만인들도 대만인이 중국인이라는 것에 반하지 않는 것은 양안교류의 결과로 보인다.

22) (ECFA '황금 10년', '둘째 대만'에 밀려난 '장자 홍콩'의 설움 (6) 차이완 시대... 떠오르는 '메가 마켓')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76087> (2011년 3월 28일).

영화 '색계'에서 의미하던 양안의 대치와 시대상황에 따른 젊은이들의 피해는 이제 경제적 경쟁과 취업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지, 사상적 대립과 가치관의 혼돈의 단계는 벗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대만지역의 '대만정서'에 따른 '범란'과 '범록'의 대립에 따른 정치 구도,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 중국의 대만관련 지도자들의 정치성향 그리고 대만을 둘러싼 국제정치학적 문제는 양안 교류의 내적 문제와 외적 문제가 복잡하게 연계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미래의 중국인들이 어떠한 양안형상을 만들어낼지는 중국인들의 '중화주의 가치관'과 '경제적 실익' 그리고 '국가와 지역의 안전'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교류와 협력 혹은 견제와 대치의 형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參考文獻》

- 張愛玲著, 《色, 戒》, 北京: 北京出版社出版集團, 2007.
- 丁偉, “兩岸結構共同體: 理論、政治、矛盾”, 香港珠海學院亞洲研究中心, 《2010海峽兩岸與台港關係》學術研討會論文, 香港: 香港珠海學院亞洲研究中心, 2011.
- 周芬伶著, 《孔雀藍調: 張愛玲評傳》, 台北: 麥田出版, 2005.
- 陳懷儀 著, 《大導演: 李安的故事》, 台北: 文經出版社有限公司, 2009
- 金耀基, “中國人的公、私觀念”, 喬健、潘乃谷主編, 《中國人的觀念與行為》, 台北: 麗文文化事業股份有限公司, 1997 蔡登山, 《色戒愛玲》, 臺北: INK, 2007.
- 蔡瑋, “兩岸文化協議芻議”, 香港珠海學院, 《亞洲研究》, (香港: 香港珠海學院亞洲研究中心, 2001.
- 張潔平、張殿文, 《新張愛玲現象 緣滅緣起胡蘭成》, 香港: 亞洲週刊 二十三卷 十二期, 2009.
- 문흥호, 《대만문제와 양안관계》, 서울: 폴리테이아, 2007.
- 우병국, 「동아시아에서의 미·중 간 세력전이와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 전가림, 「양안관계 개선이 동북아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제49집 1호 2009.
- 潘維教授 blog <http://www.caogen.com/blog/index.aspx?ID=198>新浪博友熱評《色, 戒》<http://blog.sina.com.cn/lm/z/sejie/index.html>
- 推手 (電影) 維基百科
[http://zh.wikipedia.org/wiki/%E6%8E%A8%E6%89%B_\(%E9%9B%BB](http://zh.wikipedia.org/wiki/%E6%8E%A8%E6%89%B_(%E9%9B%BB)

%E5%BD%B1)

아시아투데이, 'ECFA '황금 10년', '둘째 대만'에 밀려난 '장자 홍콩'의 설움
(6) 차이완 시대... 떠오르는 메가 마켓'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376087>

新浪博友熱評《色, 戒》, <http://blog.sina.com.cn/lm/z/sejie/index.html>

<Abstract>

The implications in economic and cultural for Taiwan-strait exchanges by related by 'Lust, Caution'.

Novels 'Lust, Caution' and movies 'Lust, Caution' mean the Taiwan-strait relations' should make more liberal and progressive. The Chinese Kuomintang and the Communist Party should solve their contradiction in themselves for the future of both sides young people, conflict and competition will not be useful for both sides.

This cross-strait exchanges between Chinese Kuomintang and the Communist Party more useful than compete with each other for their future in economic and cultural development.

The cooperation between Chinese Kuomintang and the Communist Pa is some different from a matter of international political perspective.

ECFA and 'Santong(Three fields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Taiwan)' is consciousness of cross-strait exchanges in the cultural and economic fields. In particular, the cross-strait cultural and economic integration of young people between both sides will reduce hostility and jealousy in both sides.

Key Words : the relations of China and Taiwan 'Lust, Caution' economy culture exchange

이 논문은 2011년 11월 20일에 접수되어 2011년 12월 15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1년 12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